

인조섬유의 성장예측

본고는 미국 「필립스」 섬유회사의 사장인 「헤드」 (A. J. HEAD)씨의 글을 번역 요약한 것으로 1973년부터 1978년까지 인조섬유의 성장 예측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섬유공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섬유공업이 확장되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섬유류 특히 의류의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석유화학이나 그 이외 원료의 불충분한 공급이 방직섬유의 부족 상태에 직결됨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아랍국가들의 석유 금수조치로 말미암아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겨 일어난 비사우이기는 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만 미국내의 에너지 개발을 저해시키는 제한요소라든가 천연가스의 문제등 국가의 통제에 좌우되는 제반문제들은 앞으로의 당면과제가 될 것이다. 아랍국가들과 그 외의 산유국들에 의하여 인상책정된 원유의 고가는 미국내에서 생산되는 저가의 원유와 평균한다 할지라도 섬유원료에 대한 인산오딘 가격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와 그에 수반되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에는 오랜시간이 필요하고 복잡하므로 섬유에 대한 공급 전망과 성장예측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미국내에는 섬유생산공장의 절감에 영향을 받게 될 250만명의 인구가 인조섬유와 방직 및 의류업계에 종사하고 있다. 인조섬유 생산공장은 미국내 석유의 약 1.0%(상당량의 가스 포함)를 사용하는 반면 미국의 방직공장에서 사용되는 섬유전체의 70%를 공급해 주고 있는데 그 1.0% 중섬유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1/2이하이며 그 나머지는 원료로서 섬유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된다. 1973년에는 인조섬유가 미국내의 방직공장에서 소비한 모든 섬유의 70%를 차지했고 면은 29%, 양모는 1%이며 견과 린넨은 거의 소비가

없었다. 그럼 섬유경제사무국(Textile Economics Bureau)에서 발표한 1973년도의 섬유소비량 표를 살펴보자 이 섬유들의 대다수는 미국내의 생산업자들에 의하여 공급되었으며 많은 외국의 생산업자들은 미국의 시장으로부터 물러나게 되었다.

<표 1>을 보면 1973년도에 있어서 인조섬유의 총소비량은 폴리에스터가 25억 8천만 파운드로서 가장 많으며 나일론이 17억 5천만, 레이온이 8억 4천 5백만, 아크릴이 6억 2천 5백만, 그리고 아세테이트가 4억 2천 5백만 파운드로서 소비량이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 미국의 섬유 추정소비량(수입포함)

단위 : 백만파운드

人造纖維의 種類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年 平 均 成長率(%)
폴리에스테르 紡織糸	1,130	1,180	1,250	1,375	1,450	1,600	7.2
＃ 紡織스테인폴	1,130	1,130	1,220	1,395	1,510	1,630	7.6
카페트용 폴리에스테르	185	175	185	200	210	225	4.0
폴리에스테르 充填材料	135	130	145	165	180	190	7.1
나일론 紡織糸	560	570	580	590	600	610	1.7
＃ 紡織스테인폴	35	30	30	25	25	25	-6.5
＃ 카페트糸	610	690	770	840	920	1,000	10.4
＃ 카페트스테인폴	545	560	625	700	790	900	10.6
아크릴 紡織스테인폴	450	460	480	500	530	570	4.8
＃ 카페트스테인폴	175	180	180	185	190	200	2.7
아세테이트糸	395	405	405	405	405	405	0.5
＃ 스테이폴	30	30	30	30	30	30	—
레이온 紡織糸	90	80	60	40	15	—	—
＃ 紡織스테인폴	755	780	825	875	955	1020	6.2
1인당平均纖維消費量(파운드)	59.3	59.5	60.0	62.1	63.7	65.5	2.0
인구성장(백만명)	210.4	212.1	213.9	215.9	218.0	220.0	0.9

* 섬유경제 사무국 발표

미래의 전망

1974년에서 1978년까지 남캘리포니아주의 방직공장주들이 특히 관심을 두

고 있는 인조섬유의 소비 전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전망은 직접 시장조사를 하여 얻어진 가장 유용한 정보임을 말해둔다. 중간 원료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석유화학에 의한 원료의 부족으로 섬유의 부적현상이 지속되기 때문에 1974년에는 그리 현저한 소비 증가가 기대되지 않는다. 1975년에도 원료부족 현상이 어느정도 있게 되지 않을까하는 예측이 든다. 그러나 폴리에스터의 경우 나일론보다 더 빠른 원료의 호전이 예상되므로 사에서나 스테이플에서 모두 나일론보다 이용력이 더 증가할 것 같다.

1976년에는 섬유원료의 공급이 좀더 개선되리라고 기대한다. 공장의 수요는 나일론에서 보다 폴리에스터에서 더 증가를 보일 것이며, 그것은 폴리에스터의 중간 원료가 되는 석유화학원료가 더 빨리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1975년에서처럼 76년에도 나일론은 카페트용 실이나 스테이플에서 나일론의 중간 원료에 필요한 특수한 원료에 의존하게 되며 만일 이것이 구현되지 못하면 소비량은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1975년부터 1978년까지 폴리에스터의 소비증가 추세는 그런대로 유지될 것 같다. 그것은 폴리에스터의 중간원료가 되는 기본원료인 에틸렌과 파라키실렌의 공장 확장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1977년에는 방직용 실과 섬유의 사용이 늘어나 공급과 소비 그리고 분배의 소통과정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1978년에도 폴리에스터의 소비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며 원료 및 석유화학기계의 용량이 더욱 빨리 증가된다면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나일론은 대부분이 카페트용 실과 스테이플의 증가를 보이며, 레이온의 실은 감소하고 스테이플이 7%의 증가를 보이며, 아크릴은 완만한 증가를 보이나 아세테이트는 74년부터 78년까지 계속 4억 3천 5백만 파운드를 유지할 것 같다.

<표 1>에서 보듯이 각 섬유의 연평균 증가율은 매우 흥미가 있다. 폴리에스터의 경우 방직용 실이 7.2%, 스테이플이 7.6%, 그리고 나일론에서는 카페

트용 실이 10.4%, 카펫용 스테이플이 10.6%가 된다. 1973년에서 78년까지 1인당 평균 섬유소비량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속에는 천연섬유와 인조섬유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섬유의 1인당 소비량은 원료 부족으로 인하여 1975년까지 제한될 것이다. 그리고 76, 77, 78년으로 감메 따라 섬유의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인구도 증가하여 78년에는 2억 2천만에 달하게 될 것이다. 근래에는 인조섬유의 가격 인상에 대한 많은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데 다음은 세가지의 중요한 인조섬유에 대하여 1967년도를 100%로 기준한 1963년에서 1973년까지의 가격지수이다.

- 폴리에스터사(150데니어를 근거로 함)는 1963년의 128에서 1973년에는 66으로 지수의 감소를 나타냈음

- 폴리에스터 스테이플($1\frac{1}{2}$ 데니어의 스테이플을 사용)은 1963년의 196에서 1973년에는 66으로 감소되었음.

- 나일론사(70데니어를 기준)는 1963년의 123에서 1973년에는 77로 감소되었음.

원료의 가격인상으로 상승된 최근의 물가 양등을 참작하더라도 이들은 1967년의 가격에 비하여 훨씬 뒤 떨어지는 것이다. 가장 잘 알려진 품목인 65% 폴리에스터/35%면 혼방의 남자용 셔츠를 보면 흥미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일반적인 셔츠의 가격은 1967년에는 5달러였고 1974년 봄에는 6달러였다. 그러나 65% 폴리에스터 혼방직물 2.8평방야드의 가격은 32센트 하락이 되었는데 이것은 비섬유소섬유인 인조섬유가 오늘날 가장 값비싼 것 중의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